

CD 1~2장의 크기로 DVD 수준의 화질과 음질을 보장해주는 뛰어난 압축률의 Divx파일이 보편화되면서 보다 현장감 있는 영상을 큰 화면의 TV에서 즐기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기존 TV의 해상도 문제와 모니터의 응답속도 문제를 보완해주는 '디빅스플레이어'들이 속속 시장에 출시되면서 DVD롬보의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시여어의 보급과 더불어 디빅스플레이어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더 빨리, 더 작게, 더 고화질로 Divx플레이어, 업그레이드 신제품 연이은 출시

젠네트웍스, 이동식 저장장치와 디빅스플레이어의 결합 'DivXstorage' 출시



네트워크와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토리지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는 젠네트웍스(대표 박동명)는 최근 디빅스플레이어 'DivXstorage'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기존 미디어플레이어와 달리 HDD방식을 기반으로 정지 영상과 음악파일은 물론 CD, DVD, Divx, MPEG 등의 동영상파일을 2.5인치 HDD에 최고 80GB까지 저장할 수 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구축 없이 바로 TV나 오디오기기에 연결해 고화질의 영화와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작은 크기와 126g의 무게로 차량에도 부담 없이 장착할 수 있고, USB 2.0의 지원과 리모콘 제공으로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향후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멀티미디어와 스토리지 제품군이 결합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발표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대형 유통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 젠네트웍스 박동명 대표 | 현재 젠네트웍스는 미국의 대형 유통 체인망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공급하며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미국시장 진출 4개월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파워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 기존 해외시장의 지속적인 공략과 더불어 신규 해외시장 창출에도 힘을 쏟겠다.

디티에스정보통신, 5.1채널 사운드로 즐기는 Divx '모덱스 HD-3510' 출시



세계 최초로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장치 겸용 디빅스플레이어를 개발한 네트워크 스토리지 전문업체 디티에스정보통신(대표 박형희)은 최근 '모덱스 HD-3510'을 출시하였다. 3.5인치 240GB HDD를 탑재한 이 제품은 차량 내에서도 시가잭을 이용해 간편하게 고화질의 영상을 5.1채널의 사운드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ivx나 MP3의 경우 자막과 가사를 지원하여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엔터테인먼트와 에듀케이션이 접목된 에듀테인먼트기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USB 2.0의 인터페이스로 480M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하였으며 차량용 리모콘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기대되는 디빅스플레이어시장의 초기 사업 진출을 통해 시장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신규사업으로 인한 수익성 향상 및 매출확대를 누린다는 것이 회사측의 전략이다.



2005년 1천만달러 수출 달성이 목표 ● 디티에스정보통신 박형희 대표 | 지난 4월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공략에 포문을 열었다. 현재 캐나다, 홍콩,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등으로 추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수년 전 국내중소기업이 개발한 MP3플레이어가 세계시장을 주도한 것처럼 디빅스플레이어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가격경쟁력 확보로 2005년 1천만달러의 수출 달성을 이뤄내겠다.